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Humiliation Inventory

Sera Lee Hyun-Kyun Shin[†]

Department of Psych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Korea

The Humiliation Inventory (HI) was developed by Hartling and Luchetta(1999) to assess the internal experience of humiliation. The aim of this study is to validate the Korean version of HI (K-HI). 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 was conducted on the data of 252 adults (*Mean age* = 34.83, *SD* = 7.6) to check factorial validation. After 10 items that cross-loaded onto two factors were removed, three factors of 22 items were confirmed. Based on the E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was conducted on the data of 253 adults (*Mean age* = 34.12, *SD* = 8.5) to test the stability and generalization of the factor structure. The original Inventory had two subscales: “fear of humiliation” (F1), and “cumulative humiliation” (F2). When a third factor, “humiliation of incompetence” (F3), was added to K-HI, the model fit (TLI = .90, CFI = .91, RMSEA = .09) was better than that of the two-factor model. This result may reflect cultural distinctiveness. Korea is a highly competitive society,-; therefore, “fear of humiliation” and “humiliation of incompetence” may have different meanings among the Korean people. Also, K-HI exhibited appropriate concurrent validity. It correlated with *Internalized Shame* positively and with *Rosenberg’s Self-Esteem* negatively. Assuming that humiliation correlates with anger and aggression, correlation analyses were carried out with the *State-Trait Anger Expression*. They showed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s and demonstrated the clinical utility of K-HI. Cronbach’s α of the three factors were good (F1 = .96, F2 = .94, F3 = .81). K-HI is expected to be used in the studies of other themes, such as anger, aggression, depression, suicide, and psychotherapy.”

Keywords: humiliation, humiliation inventory, psychopathology, validation

모멸감(humiliation)은 대인관계 상황에서 상대에 의해 자신의 권위가 떨어지거나 굴욕적인 위치에서 다른 사람과 강제로 상호작용할 때 경험하게 되는 감정이다(Miller, 1988). 모멸감은 그 속성상 필연적으로 개인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고, 극심할 경우 다양한 부적응적 양상을 촉발시킬 수 있다(Hartling & Luchetta, 1999). 선행연구들은 모멸감이 낮은 자존감, 학교 생활의 어려움, 빈곤, 사회불안장애, 편집증, 우울, 부부관계 불화, 가정폭력, 성적 인 공격행동(sexual aggression), 강간, 연쇄살인, 고문, 자살 등 광범위한 병리적 현상과 관련되어 있고, 인간 사회의 갈등을 반복적으로

로 야기하는 주요 변수 중 하나라고 지적하였다(Brown, Harris, & Hepworth, 1995; Hartling & Luchetta; 1999; Kelin, 1991b; Silver, Conte, Miceli, & Poggi, 1986; Stamm, 1978). 또한 모멸감은 사회적 통제(Silve et al., 1986), 대규모의 탄압(Klein, 1991a), 국제적 분쟁(Scheff, 1994)과 같은 사회적 현상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심리학자들을 비롯해 많은 사회과학자들이 모멸감을 사회 속의 만연화된 부정적 경험이자 현상이라고 지속적으로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멸감을 다양한 심리적 현상과 관련된 중요한 변인으로 다룬 경험적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Hartling & Luchetta, 1999).

모멸감의 구성개념은 수치심(shame), 당혹감(embarrassment), 죄책감(guilty) 등 “자기(self)”에 대한 의식과 평가에서 기인한 “자기-의식적 정서(self-conscious emotions)”와 자주 함께 논의된다. 수치심과 모멸감 모두 정서가 유발되는 사건에 대한 개인적 해석이 요구되고, 자기의 일부 측면이 아니라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Klein,

[†]Correspondence to Hyun-Kyun Shin, Department of Psych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77 Yongbong-ro, Buk-gu, Gwangju, Korea; E-amil: shk2004@chnonnam.ac.kr

Received Oct 19, 2017; Revised Jan 08, 2018; Accepted Jan 25, 2018

This work was financially supported b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16(2016-0118). This study is based on the poster presentation, 15th European Congress of Psychology (2017, Amsterdam).

1991b). 또한 일반적으로 감정 표출, 분노, 불안 반응을 보이며,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인 심리적 손상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유사하다(Hartling & Luchetta, 1999). 하지만 모멸감은 수치심에 비해 대인관계와 상호작용을 더 강조한다. 즉 대인관계에서 더 힘이 있는 자에 의해 평가절하 받거나 무언가를 강요받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다. 이와 달리, 수치심은 스스로의 부정적인 평가를 처리하는 내적인 과정에 중점을 둔다. 정리하자면, 수치심은 자신과 타인이 정한 이상과 기대에 부합하지 못했을 때 느끼는 정서이고, 모멸감은 자신의 “행동”이 아니라 단지 “자기 자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비하나 조롱을 당할 때 생기는 정서이다. 모멸감에 비해 수치심은 사람들이 비교적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때로는 분노 억제, 불필요한 개인 노출 보호 등 적절한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모멸감에는 그런 기능이 없다(Hartling & Luchetta, 1999; Klein, 1991b). 한편, 당혹감과 모멸감은 둘 다 상호작용을 중요시하지만 당혹감이 상대적으로 개인적 경험의 피상적인 부분과 행동 및 태도 등 드러나는 측면에 무게 중심을 둔다는 점에서 다르다(Babock & Sabini, 1989). 게다가 당혹감의 중요 요소인 행동과 태도는 모멸감의 핵심 요소인 개인정체감과 비교했을 때, 상황에 따라 변화가 보다 용이하다. 마지막으로 죄책감은 구성개념 면에서는 모멸감과 공유하는 부분이 많지 않지만 대인관계적 측면에서 보면 모멸감과 마찬가지로 미해결된 채 남아 있는 관계와 관련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Kugler & Jones, 1992). 모멸감은 종종 다른 어떤 정서보다 무력감을 쉽게 일으키지만 타인 앞에서 자신을 충분하고 적절히 보호하지 못했을 때에는 죄책감을 동반하기도 한다. 모멸감은 무력감을 낳고, 이 무력감은 내재화된 죄책감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는 추후 모멸감에 대한 취약성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모멸적인 환경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자신에게 모멸감을 느끼게 한 대상자에게 저항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내재화한다. 이 죄책감은 자신의 모멸감에 대한 자각과 그에 따른 심리적 저항을 무의식적으로 최소화하여 표면적으로는 잘 조절된 행동을 이끌어내기도 한다(Hartling & Luchetta, 1999; Leidner, Sheikh, & Ginges, 2012; Miller, 1983).

개인적/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모멸감이 직접적인 연구 주제로 등장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이다. 일군의 연구자들은 모멸감을 일상적인 상호작용에서부터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의 생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서 연구한 끝에, 모멸감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무력감과 비인간성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Silver et al., 1986). 한편, Klein(1991a)은 “모멸감 역동(humiliation dynamics)”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모멸감 경험과 연관있는 행동 양상을 설명하면서 (1) 모멸감 유발자(the humiliator), (2) 모멸감 희생자(the victim), (3) 목격자(the witness)를

모멸감의 구성요소(역할)로 제안하였다.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을 모멸감 희생자로 기억하지만 대부분은 일생동안 세 가지 역할을 모두 경험한다. 모멸감은 전형적으로 힘의 불균형으로부터 발생하고, 모멸감 유발자가 힘과 권력에 의해 점점 대담해질수록 모멸감 희생자는 혼란, 무력감, 고립감, 배척이나 조롱당하는 기분 등을 느끼게 된다. 또한 목격자는 모멸감 사건의 목격을 통해 희생자와 동일하거나 더 큰 수준의 모멸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 이는 추후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가장 극적인 영향력은 자살과 관련이 있는데, 모멸감에 대한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죽음을 선택하거나(Silver et al., 1986) 모멸감의 결과로 자살을 시도할 수 있다(Hendin, 1994). 최근의 연구들은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모멸감을 연결시켜 병리적 현상을 설명하였는데, 자기애성 성격장애, 강한 분노와 공격성, 낮은 자존감, 우울 등이 높은 모멸감 수준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ollazzoni et al., 2014; Leask, 2013).

개인의 심리적 문제에서부터 다양한 사회적 현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모멸감을 심층적으로 다룬 연구는 대부분 문헌연구이다(Klein, 1991b; Miller, 2002; Swift, 1991). 그러나 Hartling과 Luchetta(1999)는 모멸감 측정 도구를 개발함으로써 모멸감을 실증적이고 경험적인 연구 영역으로 끌어왔다. 그들은 여러 문헌을 통해 모멸감 관련 내용을 추출하면서 모멸감이 흔히 혼용되는 수치심이나 여타의 다른 개념들과는 다른 고유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일련의 타당화 과정을 거쳐 모멸감 척도(Humiliation Inventory, HI)를 개발하였다. HI는 모멸감 희생자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존재가 무시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비하 또는 조롱받았던 경험 속에서 느꼈던 불쾌한 감정들을 과거 시점과 현재 시점으로 측정한다. HI 문항의 예는 “귀하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비하를 당해 얼마나 심하게 상처를 받았습니까?”, “귀하는 현재, 조롱당할까봐 얼마나 두렵습니까?” 등이고,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로써 개인이 과거에 얼마나 모멸감을 강하게 느꼈고(‘모멸감 경험’ 요인/12문항), 현재 모멸감에 대해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모멸감에 대한 두려움’ 요인/20문항)를 평가할 수 있다.

HI는 자기애성 성격장애, 우울증 등과 같은 정신병리 연구에 많이 사용되었다(Basser & Zeigler-Hill, 2010; Collazzoni et al., 2014; Kendler, Hettma, Butera, Gardner, & Prescott, 2003). 하지만 국내에서는 서비스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업무상 고객의 언어적 폭력에 따른 ‘모멸감(모욕감)’ 수준을 측정하는 연구 두 건(Ku, 2015; Nam, 2014)을 제외하고는 모멸감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두 연구에서 모멸감(모욕감)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한 척도는 5문항으로 구성된 언어폭력 척도의 하위척도이고, 언어폭력으로

인해 느끼는 부정적 감정을 합산하여 모멸감(모욕감)을 측정한다. 이는 HI가 과거에서부터 현재 시점에 이르기까지 모멸감과 관련된 경험 및 두려움을 비교적 광범위하게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것과 달리 언어폭력이라는 특정상황에 따른 부정적 감정상태로 모멸감을 간접 측정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다양한 상황에서 느낄 수 있거나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모멸감을 측정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실정을 기반으로 보다 많은 연구에 효과적으로 응용되어 개인적/사회적 병리 현상의 이해와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HI를 한국판으로 타당화하였다. 문화 및 교육 등 여러 가지 면에서 HI가 개발된 서구와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멸감 경험의 강도와 양상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또한 모멸감 관련 연구가 부재하여 먼저 탐색적 접근으로 요인의 구성을 확인하였고, 이후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구조를 확인한 다음, 각 하위 척도의 내적합치도를 구하고, 수치심(Internalized Shame Scale, ISS), 역상관이 예상되는 Rosenberg 자존감(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S)과의 상관분석을 거쳐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이와 더불어, 모멸감이 분노 또는 공격성과 같은 부정적 정서 및 행동 반응의 선행 정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Bushman et al., 2009; Walker & Kanuer, 2011)를 고려하여 분노를 측정하는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Korean Version (STAXI-K)과의 상관 분석을 통해 임상적 유용성을 검증하였다.

방 법

연구 참가자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목적으로 온라인 전문 설문조사 기관을 통해 성인 참가자를 모집하였다. 설문은 온라인상에서 시작 전 앞쪽에 제시된 안내문을 읽고, 연구 참여에 동의를 표시해야

만 진행되도록 하였다. 기관의 정책에 따른 경제적 보상을 대가로 자발적인 참여를 희망한 512명의 응답자료 중 지나치게 불성실한 응답으로 판단된 7부의 설문은 제외하였다. 수집된 505명의 자료는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2개의 데이터로 무선적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에 사용된 표본 1(252명)에서 남성은 128명(50.8%), 여성은 124명(49.2%)였고, 평균 연령은 34.83세($SD=7.6$)였다. 표본 2 (253명)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117명(46.25%), 136명(53.8%)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33.12세($SD=8.5$)로 나타났다. 두 표본 간 성별과 연령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성별: $\chi^2(df=1) = 1.67, ns.$, 연령: $\chi^2(df=29) = 29.63, ns.$). 그리고 직업과 교육 수준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직업: $\chi^2(df=8) = 10.38, ns.$, 교육 수준: $\chi^2(df=4) = 3.27, ns.$), 직업과 교육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기관 내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IRB No. 1040198-1600614-HR-042-20)을 받은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

측정 도구

한국판 모멸감 예비척도(Korean version of Humiliation Inventory, K-HI)

원척도는 총 32문항, 5점 척도로 32점에서 160점까지의 점수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모멸감에 대한 두려움(Fear of Humiliation, 20 문항)'과 '모멸감 경험(Cumulative Humiliation, 12문항)'이라는 두 개의 하위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모멸감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모멸감 관련 경험이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원 저자의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96으로 보고되었고, 모멸감에 대한 두려움 요인은 .94, 모멸감 경험은 .95였다(Hartling & Lucheta, 1999).

Table 1. Occupation and Education Level of Participants

Occupation	Percentile (%)		Educational background	Percentile (%)	
	Sample 1 (N= 252)	Sample 2 (N= 253)		Sample 1 (N= 252)	Sample 2 (N= 253)
Specialized job	6.0%	5.9%	Middle school graduation	0.0%	0.4%
White-collar job	52.8%	48.6%	High School graduation	24.2%	28.1%
Self-employed	5.2%	2.4%	Bachelor's degree	68.3%	64.4%
Sales/service	2.8%	3.6%	Master's degree	7.1%	5.9%
Blue-collar job	3.2%	5.1%	Doctor's degree	0.4%	1.2%
Household work	6.7%	5.9%		100.0%	100.0%
(university/college) Student	13.1%	20.9%			
Unemployed	6.0%	4.0%			
Etcetera	4.4%	3.6%			
	100.0%	100.0%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ISS)

Cook(2001)이 개발한 ISS는 자신을 향한 강한 부정적 정서 중 하나인 수치심을 측정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Cook(2001)의 제5판 원문을 Lee와 Choi(2005)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다만 한 방향으로 응답하려는 경향성을 통제하기 위해 포함된 Rosenberg 자존감 문항(6문항)은 본 연구에서 공존타당도 검증 목적으로 이용한 자존감 척도와 내용이 중복되어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 쓰인 ISS는 “나는 내 자신이 매우 작고 보잘 것 없이 느껴진다.”, “나는 완벽을 추구하지만 늘 부족함을 확인할 뿐이다.” 등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척도로 24점에서 120점의 점수 범위를 가진다. 내적 합치도의 경우, Lee와 Choi(2005)의 연구 그리고 본 연구에서 각각 .91, .96으로 나타났다.

한국판 Rosenberg 자존감 척도(RSES)

RSES는 자기개념에 관한 존중의 정도와 자아승인 양상을 측정하는 척도로 Rosenberg(1965; Lee & Won, 1995에서 재인용)가 개발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Lee와 Won(1995)이 번안한 한국판 척도를 이용하였다.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들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등의 문항을 포함해 총 10문항, 5점 척도로 10점에서 50점까지의 점수 범위를 가지고 있는 RSES의 내적 합치도는 .89였고, 본 연구에서는 .90이었다.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Korean Version, STAXI-K)

STAXI-K는 분노경험과 분노표현을 동일한 척도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고(Sipelberger, 1988), Chon, Hahn, Lee(1997)가 한국판으로 개발하였다. 하위 척도에는 분노경험과 관련된 상태분노(예: “나는 격분하고 있다.”)와 특성분노(예: “나는 성미가 급하다.”) 문항이 각각 10개씩 있고, 분노표현 양식을 측정하는 분노억제(예: “나는 상대의 시선을 피한다.”/8문항), 분노표출(예: “나는 목소리를 높인다.”/8문항), 분노통제(예: “나는 나의 행동을 자제한다.”/8문항)가 포함되어 있다. 모든 하위척도는 4점 척도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하위척도의 특성이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원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각각 .89, .82, .67, .67, .79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3, .88, .85, .82, .84이었다.

절차 및 자료 분석

Hartling과 Luchetta(1999)가 모멸감에 관한 경험적 연구와 문헌 고찰을 통해 추출한 문항을 바탕으로 개발한 모멸감 척도(HI)를 원 저자에게 번안 및 타당화에 대한 동의를 구한 뒤, 한국어로 번안

하였다. 번안 과정은 임상심리 전문가(교수) 1인, 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한 심리학 전공 교수 1인, 임상심리학 전공 박사과정 1인의 논의를 통한 1차 번역본 구성으로 시작되었다. 이를 심리학 전공 서적번역가 2인(심리학 전공 교수, 전문 번역가)이 감수하여 2차 번역본을 제작한 뒤, 한국어와 영어에 모두 능한 미국인 유학생이 역번역하는 과정과 검토를 거쳐 최종 번역안을 확정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크게 두 과정으로 나뉜다. 우선 K-HI의 하위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SPSS Program 20.0을 이용하여 252명(표본 1)의 자료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고, 신뢰도를 확인하고자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요인의 추출방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선택하였고, 추출된 요인 간의 상관성이 예상됨에 따라 Lee(1995)의 권고를 바탕으로 사각회전(oblique rotation) 중 하나인 프로맥스 사각회전방법(promax rotation)으로 요인 회전을 하였다. 이후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된 요인구조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253명(표본 2)의 자료를 사용해 AMOS Program 20.0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행하였다. 또한 K-HI의 수렴 및 변별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준거 척도들과의 상관분석을 하여 Pearson's r 을 산출하였다.

결 과

K-HI의 탐색적 요인분석

K-HI 예비척도의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전, 문항 간의 상관관계가 특정 요인으로 얼마나 잘 설명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Kaiser-Meyer-Olkin (KMO)을 산출한 결과, 그 값이 .94로 나타나 기준치인 .60 이상이므로 요인분석에 적합하였다. 그리고 Bartlett의 구형성(sphericity) 역시 유의한 수준($\chi^2 = 7179.07, p < .001$)에 해당하는 바, 요인분석이 가능할 만큼 변인들 간의 상관성이 충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어,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해 K-HI의 하위요인 및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최대우도법과 프로맥스 사각회전방법($kappa = 4$)을 적용한 요인분석 결과, 고유값(eigen value)이 1.0 이상인 요인의 수는 4개였다. 그러나 요인당 문항수와 요인부하량을 고려했을 때, 4요인 모형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스크리도표상 고유값이 급격한 하락에서 완만한 하락으로 바뀌는 지점을 기준으로 재분석을 실시하였다(Figure 1). 즉 해석 가능성을 감안하여 요인의 수를 3개로 지정하고 다시 요인분석을 실행하였으며, 그에 따라 7번 반복회전하여 요인회전이 수렴되었다. 그 다음, 한 요인에 최소 2문항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요인 부하량이 최소 .40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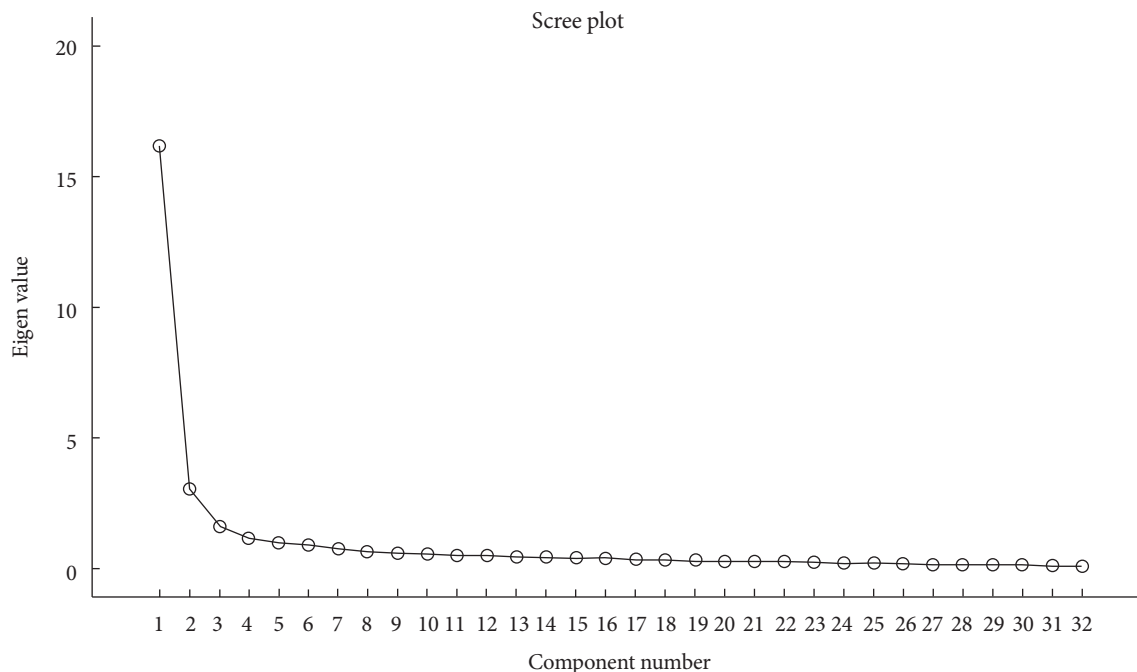


Figure 1. Scree Plot of K-HI.

상인 것을 기준으로 정하였다. 또한 서로 다른 두 요인에 모두 .40 이상의 부하량을 보이는 동시에 그 차이가 .20 이하인 문항의 경우, 교차 부하(cross loading)되어 문항 변별력이 약화되므로(Shin et al., 2015) 삭제하였다. 이 절차에 따라 10개 문항이 제외되어 최종 22문항이 선정되었다. 추출된 3개 요인에 의한 총 누적 설명변량은 61.61%였고, 요인 1이 49.31%로 가장 높은 설명량을 나타냈으며, 요인 2가 7.76%, 요인 3이 4.54%를 추가 설명하였다(Table 2). 원칙도에서 요인 1(모멸감에 대한 두려움)의 문항은 “~할까봐 두렵다.(11 문항)”, “~할까봐 신경 쓰인다.(7문항)”, “~로 보일까봐 걱정된다.(2 문항)”로 문장이 끝난다. 이 중, 가장 많이 제외된 문항은 “~할까봐 신경 쓰인다.”로 끝나는 문항 6개였고, “~로 보일까봐 걱정된다.”로 끝나는 문항은 요인 3으로 분리되었다. 또한 “~를 당해 상처받았다.”로 끝나는 요인 2의 문항들(12문항) 중 2문항이 앞서 제시한 통계적 근거에 의해 제외되었다. 요인 1의 문항들에 쓰인 “두렵다”와 “신경 쓰인다”는 경험의 강도에서 차이가 있지만 같은 요인 안에 함께 있어 상대적으로 더 강한 정서를 나타내는 “두렵다”로 끝나는 문항들의 변별력이 더 뚜렷하게 나타났을 수 있다.

각 요인별 문항들의 공통적인 특징에 따라 각 요인명을 결정하였는데, 요인 1은 총 10문항으로 현재 시점에서 모멸감을 느끼게 될까 봐 얼마나 두려운지를 묻는 문항들(예: 멸시 당할까 봐 두렵다, 조롱 당할까 봐 두렵다 등)로 구성되어 “모멸감에 대한 두려움(fear of humiliation)”이라고 정하였다. 요인 2의 경우, 총 10문항으로, 과거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모멸감 경험을 묻는 문항들(예: 강자에게 괴롭힘을 당해 상처받았다, 비웃음을 당해 상처받았다, 모욕적인 말을 들어 상처 받았다 등)이 포함되어 “모멸감 경험(cumulative humiliation)”이라고 하였다. 요인 3은 Hartling과 Luchetta(1999)의 연구와는 달리 요인 1에서 일부 분리된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고, 총 2문항이며, 타인에게 비치는 자신의 무능력한 모습을 걱정하는 내용들(예: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부족한 사람으로 보일까 봐 걱정한다 등)을 담고 있어 “무능력에 대한 모멸감(humiliation of incompetence)”이라고 이름 붙였다.

K-HI의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K-HI의 3요인 구조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AMOS Program 20.0을 이용하여 표본 2 ($N=253$)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Figure 2). 본 연구에서는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덜 받고, 모형 평가 시 오류와 간명성을 동시에 고려한 적합도 지수(fit index), 즉 TLI, CFI, RMSEA를 중심으로 해석하였다. Table 3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K-HI의 주요 적합도 지수는 $\chi^2_{(df=206)}=673.08$, TLI=.90, CFI=.91, RMSEA=.09 (90% CI [.087-.10])로 나타났다. TLI와 CFI는 .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로 판단할 수 있는데(Hong, 2000), 본 연구에서 제안한 3요인 구조모형은 둘 다 .90 이상으로 좋은 적합도에 해당한다. 그리고 구조방정식 모형과 자료가 부합하는 정도를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Table 2.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K-HI

Items	Factor Loadings		
	F1	F2	F3
At this point in your life, how much do you fear being...			
(13) ...scorned?	.77		
(14) ...bullied?	.77		
(15) ...ridiculed?	.84		
(17) ...harassed?	.80		
(18) ...put down?	.85		
(19) ...excluded?	.75		
(20) ...laughed at?	.85		
(21) ...cruelly criticized?	.80		
(22) ...cruelly disciplined?	.82		
At this point in your life, how concerned are you about being...			
(24) ...teased?	.76		
Throughout your life how seriously have you felt harmed by being...			
(1) ...teased?		.69	
(2) ...bullied?		.64	
(3) ...scorned?		.80	
(4) ...excluded?		.75	
(5) ...laughed at?		.87	
(6) ...put down?		.85	
(7) ...ridiculed?		.88	
(8) ...harassed?		.75	
(9) ...discouted?		.65	
(11) ...cruelly cirticized?		.71	
How worried are about being...			
(31) ...viewed by others as inadequate?			.92
(32) ...viewed by others as incompetent?			.91
eigen value	16.19	3.04	1.59
cumulative variance (%)	49.31	57.07	61.61

RMSEA는 적합도를 .05 이하, .80 이하, .10 이하, .10 이상으로 나누어 각각 좋은 적합도, 괜찮은 적합도, 보통 적합도, 나쁜 적합도라고 분류한다(Hu & Bentler, 1999). 이에 따르면, K-HI의 3요인 모형의 적합도는 보통이다. 이 세 개의 적합도를 종합하면, 2요인 구조모형이었던 원척도와 달리 K-HI의 3요인 구조모형은 자료를 보통에서 좋은 정도로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원척도와 같은 2요인 구조의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해 요인 1과 요인 3을 원척도에서처럼 하나의 요인으로 묶어 적합도를 구해 3요인 구조모형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2요인 구조모형은 3요인 구조모형에 비해 적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LI=.85, CFI=.86, RMSEA=.11).

신뢰도

K-HI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내적합치도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전체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96으로 높은 수준이고, 하위 요인들

Table 3. Model Fit in 3-Factors of K-HI (N = 253)

Model	χ^2	df	TLI	CFI	RMSEA (90% confidence interval)
3-factor	673.08***	206	.90	.91	.09 (.087-.10)
2-factor	889.90***	208	.85	.86	.11 (.10-.12)

*** $p < .001$.

의 내적합치도는 요인 1(모멸감에 대한 두려움), 요인 2(모멸감 경험), 요인 3(무능력에 대한 모멸감) 순으로 각각 .96, .94, .81로 나타났다.

수렴 및 변별타당도

K-HI의 수렴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모멸감과 유사한 개념으로 혼동되지만 보다 내면화된 개인적 반응으로 간주되는 내면화된 수치심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변별타당도의 확인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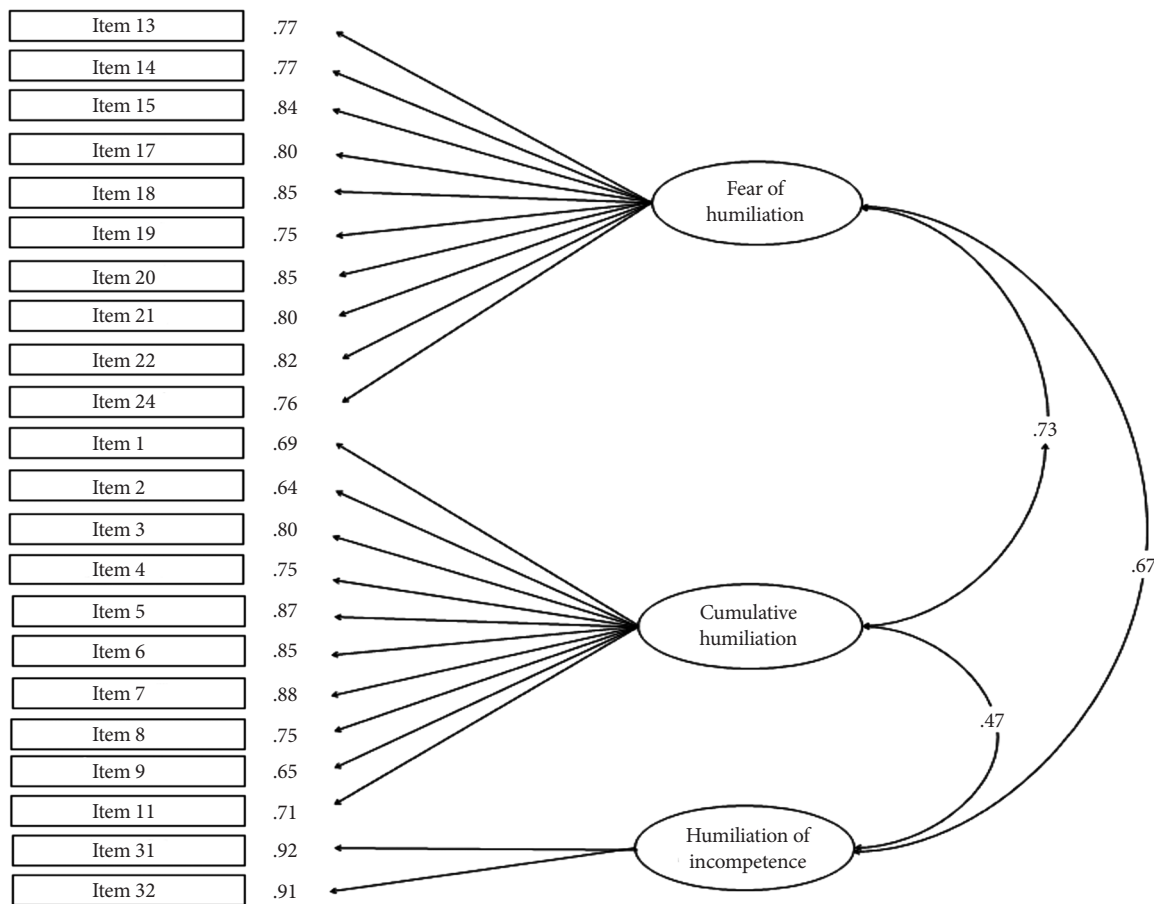


Figure 2. Structure of 3-factors in K-HI.

Table 4. Means, SDs and Cronbach's α of K-HI

		Total	F1	F2	F3
Mean (SD)	All participants (253)	59.66 (17.61)	26.64 (8.91)	26.83 (8.75)	6.18 (2.11)
	Male (117)	60.91 (16.79)	27.49 (8.33)	27.17 (8.45)	6.24 (1.09)
	Female (136)	58.59 (18.27)	25.91 (9.36)	26.65 (9.02)	6.3 (2.20)
Cronbach's α		.96	.96	.94	.81

Note. Total = Total score of K-HI; F1 = Factor 1's score of K-HI; F2 = Factor 2's score of K-HI; F3 = Factor 3's score of K-HI.

자존감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임상적 유용성 검증 차원에서 상태-특성 분노 표현과의 상관을 구하였다(Table 5). 그 결과, 내면화된 수치심과는 정적인 상관($r = .63, p < .01$)을, 역상관을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된 자존감과는 부적상관($r = -.53, p < .01$)을 보였다. 따라서 K-HI의 수렴/변별타당도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STAXI-K와의 상관을 살펴보면, 상태분노, 특성분노, 분노표출, 분노억제 등 4개의 하위척도와는 중등도 수준의 유의한 정적상관이 일관성 있게 나타났다. 그러나 분노통제와는 요인에 따라 유의하지 않거나 약한 수준의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분

노통제가 모멸감 총점과 요인 2(모멸감 경험)와는 경미한 수준이지만 유의하게 역상관을 보인 것과 달리 요인 1(모멸감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요인 3(무능력에 대한 모멸감)과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모멸감을 측정하는 척도인 HI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K-HI의 요인구조, 신뢰도 및 타당도를 살

Table 5. Correlations between K-HI, ISS, RSES & STAXI-K

	K-HI_Total	K-HI_F1	K-HI_F2	K-HI_F3
ISS	.63**	.62**	.49**	.62**
RSES	-.53**	-.53**	-.41**	-.51**
STAXI-K_State anger	.31**	.27**	.29**	.24**
STAXI-K_Trait Anger	.32**	.29**	.27**	.30**
STAXI-K_Anger In	.51**	.49**	.41**	.46**
STAXI-K_Anger Out	.24**	.21**	.21**	.24**
STAXI-K_Anger Control	-.13*	-.12	-.13*	-.07

Note. ISS = Internalized Shame Scale; RSES = Rosenberg's Self-Esteem Scale; STAXI-K =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Korean Version.
* $p < .05$. ** $p < .01$.

해보았다. K-HI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 부하량이 .40 미만이거나 서로 다른 두 요인에 모두 .40 이상의 부하량을 보이는 동시에 그 차이가 .20 이하인 10 문항을 제외하고 22문항을 추출하였으며, 3요인 구조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1은 모멸감과 관련된 다양한 정서들에 대한 두려움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요인 2에는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멸감을 느낀 경험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포함된다. 요인 3의 문항들은 원 저자의 논문에서는 요인 1, 즉 모멸감에 대한 두려움에 속해 있었으나 본 논문에서 개별 요인으로 분리되었다. 독립적인 요인으로서 요인 3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능력하고 부족한 사람으로 인식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한다. 이는 비교적 직접적으로 능력에 대한 물음을 담고 있어 감정과 정서에 초점을 맞춘 다른 문항들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 사회가 무한 경쟁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특성이 매우 강하다는 점, 즉 성취지향적이고 결과를 중요시하며 서열과 경쟁을 강조한다(Choi & Kim, 2000; Koo & Suh, 2011)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모멸감은 불평등한 상호작용 속에서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위치나 입장의 사람이 느끼기 쉬운 감정이다. 자신의 능력이 주변 사람들이나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못하다고 여길 때 모멸감에 대한 취약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능력과 관련된 문항들이 개별 요인으로 분리된 양상은 한국의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성인 자료를 사용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K-HI의 3요인 구조모형의 적합도가 적절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요인별 신뢰도가 모두 양호하고, 수렴 및 변별타당도도 검증되었다. K-HI의 임상적 유용성의 경우, 사람들의 요구와 관계가 존재하는 한 모멸감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거의 대부분 파괴적인 역할을 한다(Lindner, Hartling, & Spalthoff, 2011)는 점에 기반해 본 연구에서는 K-HI와 분노척도인 STAXI-K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 상당한 정도의 유

의미한 상관관이 도출되었다. 이는 모멸감이 분노 및 공격성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외현적으로 드러나는 공격성을 매개한다는 국외의 일부 연구 결과(Bushman et al., 2009; Walker & Kanuer, 2011)와 맥락을 같이한다. 이와 더불어, STAXI-K의 하위척도 중 분노를 다스리고 타인을 이해하려는 노력 등을 측정하는 분노통제와는 모멸감 총점과 요인 2 (모멸감 경험)만 약한 수준이지만 역상관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경미한 수준이긴 하나 모멸감 경험이 누적될 경우 분노 통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향후 개인 또는 사회적 분노나 공격행동 등을 연구할 때 본 척도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모멸감은 우울, 불안, 분노, 대인 공격, 자해, 자살과 같은 개인적 병리에서부터 테러리스트를 조직화하거나 독재자의 숙청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국가적·사회적 병리 현상에 관여한다(Lindner et al., 2011). 또한 모멸감이 대인민감성 및 적대감과 높은 상관을 지니고, 심리·사회적 요인들과 상호작용하여 부적응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들(Collazzoni et al., 2014; Gilbert, Gilbert, & Irons, 2004; Gilbert, Irons Olsen, Gilbert, & McEwan, 2006; Hartling, 2007)은 정신병리와 심리치료 영역에서 모멸감을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야 한다는 근거가 된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경제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갑(甲)이 그렇지 않은 을(乙)에게 공격치 못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넘어서서 비윤리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를 가함으로써 을(乙)의 인격과 신체를 노예처럼 구속하는 행태를 의미하는 이른바 “갑질(gabjil)”(Lee, 2016)이 최근 한국 사회에 만연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갑질은 힘의 불균형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모멸감을 발생시키기 쉬운 상태적·상황적 조건이 된다. 그렇다면 갑질이 만연한 한국사회에서 모멸감을 느끼는 개인이 많을 것이고, 그 중 일부는 심각한 병리적 상태로 전환될 수 있다는 예상이 충분히 가능하다. 갑질을 하는 사람은 모멸감 유발자와 유사한 성향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특권 의식과 타인 착취를 특징적으로 보이

는 자기애성 성격장애와 공통점이 많다. 상식적으로 갑질을 하는 사람,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모멸감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와 반대되는 연구도 있다. 예를 들어, Basser와 Zeiger-Hill(2010)은 자기애성 성격장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 거절 상황에서 모멸감을 매개로 불쾌함, 적대감, 불안 등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느낀다는 것을 유사실험으로 증명하였다. 이 결과는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 가해자가 될뿐 아니라 모멸감의 희생자도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그에 따라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그들의 문제적 행동 이면의 취약한 정서를 세밀하게 이해해야 할 필요성을 상기시킨다.

본 연구의 의의는 한국판 모멸감 측정 도구를 타당화하여 학술적 연구 및 임상적 활용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이다. 모멸감을 경험한 사람들이 보이는 부적응적인 양상은 사회적 철회, 타인에 대한 직접적인 분노표출, 관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부당한 요구의 수용 등 능동적 또는 수동적 양상을 포괄하여 다양하게 나타난다(Hartling & Luchta, 1999; Leask, 2014). 개인의 심리적 문제는 대인관계에서 비롯되거나 촉발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대인관계의 역동성을 반영하는 모멸감은 심리치료 장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타당화된 한국판 척도는 다양한 정신 병리 연구와 심리치료에 활용될 수 있다. 달리 말해, 내담자와 내담자의 사회적 관계망의 연결을 방해하는 모멸감을 확인하여 보다 상대적으로 역동적인 관점으로 병리적 현상을 이해하고, 그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치료적 개입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제안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척도 타당화를 위해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모멸감 척도의 요인을 탐색하여 한국판 요인구조의 적합도가 보통-좋은 수준임을 검증하였으나, 원척도의 경우, 탐색적 요인분석만 실시하여 모형적합도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직접적인 비교를 하지 못했다. 다만 원척도와 비교했을 때, K-HI에서 요인의 수가 증가하고 문항의 수는 감소하였는데, 이는 문항들에 ‘비웃음’, ‘비하’, ‘멸시’ 등 일상생활에서 민감하게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는 단어들의 연속적 제시에 따른 문항변별력의 저하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원척도와 달리 ‘무능력에 대한 모멸감’이라는 세 번째 요인이 추출되어, 원척도가 제작된 문화와 한국 문화의 특성 차이가 본 연구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추후 비교 문화 연구를 통해 모멸감 경험에서의 문화 차이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추후 연구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집단과 임상 집단 등을 통해 여러 가지 모델을 제시하여 검증하고, 이질적인 임상 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을 제작하는 것도 척도의 효율적 응용도를 높이는 한가지 방법일 것이다. K-HI는 비슷한 뉘앙스의 문항들이 많아 내적 일치도는 높지만 모멸감이라는

역동적 개념의 폭 넓은 스펙트럼을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다차원적 모멸감 척도로 보완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모멸감이 여러 정신병리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에 기반해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가진 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요망된다.

References

- Babock, M. K., & Sabini, J. (1989). On differentiating embarrassment from shame.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0*, 151-169.
- Besser, A., & Zeigler-Hill, V. (2010). The influence of pathological narcissism on emotional and motivational responses to negative events: The roles of visibility and concern about humiliat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4*, 520-534.
- Brown, G. W., Harris, T. O., & Hepworth, C. (1995). Loss, humiliation and entrapment among women developing depression: A patient and non-patient comparison. *Psychological Medicine, 25*, 7-21.
- Bushman, B. J., Baumeister, R. F., Thomaes, S., Ryu, E., Begeer, S., & West, S. G. (2009). Looking again, and harder, for a link between low self-esteem and agg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77*, 427-446.
- Choi, S. J., & Kim, K. B. (2000). The internal structure of the Korean social face(chemyon). *Th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14*, 185-202.
- Chon, K. K., Hahn, D. W., Lee, C. H., Chon, K. K., Hahn, D. W., & Lee, C. H. (1997). Korean adaptation of the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Anger and blood pressure. *Journal of the Health Psychology, 1*, 60-78.
- Collazoni, A., Capanna, C., Bustini, M., Stratta, P., Ragusa, M., Marino, A., & Rossi, A. (2014). Humiliation and interpersonal sensitivity in depression.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67*, 224-227.
- Duhl, R. V. (1992). Superfluous people in tomorrow's society. *Journal of Primary Prevention, 12*, 243-254.
- Farmer, A. E., & McGuffin, P. (2003). Humiliation, loss and other types of life events and difficulties: A comparison of depressed subjects, healthy controls and their siblings. *Psychological Medicine, 33*, 1169-1175.
- Gilbert, P., Gilbert, J., & Irons, C. (2004). Life events, entrapments and arrested anger in depression.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79*, 149-160.
- Gilbert, P., Irons, C., Olsen, K., Gilbert, J., & McEwan, K. (2006). Interpersonal sensitivities: Their links to mood, anger and gender.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79*, 37-51.

- Hartling, L. M. (2007). Humiliation: Real pain, a pathway to violence. *Revised Brasileira de Sociologia da Emoca (RBSE)*, 6, 234-275.
- Hartling, L. M., & Luchetta, T. (1999). Humiliation: Assessing the impact of derision, degradation, and debasement. *The Journal of Primary Prevention*, 19, 259-278.
- Hendin, H. (1994). Fall from power: Suicide of an executive.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4, 293-301.
- Hong, S. H. (2000). The criteria for selecting appropriate fit indic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their rationale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 161-177.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 1-55.
- Kendler, K. S., Hettema, J. M., Butera, F., Gardner, C. O., & Prescott, C. A. (2003). Life event dimensions of loss, humiliation, entrapment, and danger in the prediction of onsets of major depression and generalized anxiety.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60, 789-796.
- Klein, D. C. (1991a). Introduction to special issue. *Journal of Primary Prevention*, 12, 87-91.
- Klein, D. C. (1991b). The humiliation dynamic: An overview. *Journal of Primary Prevention*, 12, 93-121.
- Koo, J. S., & Suh, E. K. (2011). Happiness in Korea: Who is happy and when?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5, 143-166.
- Kugle, K., & Jones, W. H. (1992). On conceptualizing and assessing guil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318-327.
- Ku, J. K. (2015). The effect of casino customer's verbal abuse on casino dealer's burn out. *Journal of Service Research*, 13, 15-26.
- Leask, P. (2013). Losing trust in the world: Humiliation and its consequences. *Psychodynamic Practice*, 19, 129-142.
- Lee, H. J., & Won, H. T. (1995). A study of the reliability and the validity of the paranoia scal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4, 83-94.
- Lee, I. S., & Choi, H. R. (2005). Assessment of shame and its relationship with maternal attachment, hypersensitive narcissism and lonelines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7, 651-670.
- Lee, S. M. (1995). *Factor analysis: Focusing o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Seoul: Hakjisa.
- Lee, S. R. (2016). "Too Special People": Pathological Narcissism. *Journal of Modern Social Science*, 20, 31-47.
- Leidner, B., Sheikh, H., & Ginges, J. (2012). Affective dimensions of intergroup humiliation. *PLoS One*, 7, 1-6.
- Lindner, E. G., Hartlin, L. M., & Spalthoff, U. (2011). Human dignity and humiliation studies: A global network advancing dignity through dialogue. *Policy Futures in Education*, 9, 66-73.
- Miller, A. (2002). *For your own good: Hidden cruelty in child-rearing and the roots of violence*.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 Miller, J. B. (1991). *The development of women's sense of self*. New York: Guilford Press.
- Miller, S. B. (1988). Humiliation and shame: Comparing two affect states as indicators of narcissistic stress. *Bulletin of the Menninger Clinic*, 52, 40-51.
- Nam, Y. S. (2014). The effect of verbal of the customer's on anger, burn out, and turn over interaction of contact center counsellors. *Tourism Research*, 39, 17-39.
- Rothenberg, J. J. (1994). Memories of schooling.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10, 369-379.
- Scheff, T. J. (1994). *Bloody Revenge: Emotions, nationalism, and war*. Boulder, CO: Westveim Press.
- Shin, J. E., Kim, S. M., Jeon, M. Y., Park, D. H., Ryu, S. H., Ha, J. H., & Yu, J. H. (2015). A validation study of korean version of the experience of shame scale (K-ES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7, 23-29.
- Silver, M., Conte, R., Miceli, M., & Poggi, I. (1986). Humiliation: Feeling, social control and the construction of identity. *Journal for the Theory of Social Behaviour*, 16, 269-283.
- Spielbergr, C. D. (1988). *Professional manual for the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 (research ed.). Tam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Inc.
- Stamm, J. L. (1978). The meaning of humiliation and its relationship to fluctuations in self-esteem. *International Review of Psycho-Analysis*, 5, 425-433
- Swift, C. F. (1991). Some issues in inter-gender humiliation. *Journal of Primary Prevention*, 12, 123-147.
- Torres, W. J., & Bergner, R. M. (2012). Severe public humiliation: Its nature, consequences, and clinical treatment. *Psychotherapy*, 49, 492-501.
- Walker, J., & Kanuer, V. (2011). Humiliation, self-esteem and violence. *Journal of Forensic Psychiatry & Psychology*, 22, 724-741.

국문초록

한국판 모멸감 척도(K-HI)의 타당화 연구

이세라·신현균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내적 모멸감 경험을 연구하기 위해 Hartling과 Luchetta(1999)가 개발하고 타당화한 모멸감 척도(the Humiliation Inventory)를 번안하여 한국판 척도(K-HI)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조사하였다. 요인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252명의 일반 성인 자료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요인에 교차 부하된 10개의 문항을 제거하여 3요인 22문항이 K-HI의 요인구조로 확인되었다. 새로운 253명의 자료를 사용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요인구조의 안정성과 일반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원척도는 “모멸감에 대한 두려움(F1)”, “모멸감 경험(F2)”이라는 2개의 하위 요인 구조를 가졌으나 K-HI에는 “무능력에 대한 모멸감(F3)”이라는 요인이 추가될 경우 2요인 모형보다 모형 적합도가 더 양호하였다(TLI=.90, CFI=.91, RMSEA=.09). 이는 매우 경쟁적이고, 자신의 가치와 수행 능력을 동일하게 여기는 한국 사회의 문화적 특수성이 반영된 것일 수 있다. 한편, K-HI의 공존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타 척도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내면화된 수치심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역상관이 예측된 자존감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아울러 모멸감이 분노 및 공격성이라는 병리적 행동과 관련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상태분노 및 특성 분노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해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확인함으로써 임상적 유용성도 검증되었다. 또한 요인별 신뢰도 분석 결과, 세 요인 모두 내적합치도가 높아(F1's α =.96, F2's α =.94, F3's α =.81) 각 요인에 포함된 문항들이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타당화한 한국판 모멸감 척도는 추후 분노, 공격성, 우울, 자살 등 다양한 정신병리 기제 및 심리치료 연구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모멸감, 모멸감 척도, 정신병리, 타당화